

# 세계 병자의 날 기념행사

이 기 현 위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사목(보건담당)위원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매년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기념일인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기로 1992년에 결정하셨습니다. '세계 병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 창립 때부터 보여 온 병자들에 대한 봉사 정신과 교황의 관심, 그리고 현재 세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과 자선 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사회 안에서 그러한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병자의 날' 기념행사는 교황청 보건담당 사무국에서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환자 및 신체 장애자 불치병 환자들을 위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전세계 가톨릭 보건기구, 병원 기타 병원사목 담당자, 수도자, 가톨릭의사 및 간호사 등이 함께 모여 환자의 고통에 동참하여 이들의 치유를 돕기 위한 큰 행사입니다. 2001년 2월 11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교황

님 집전으로 제9차 세계 병자의 날 기념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병자의 날을 뜻깊게 보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1년에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원목사목에 봉사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참여하여 세계병자의 날을 기념하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기념 심포지엄과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으니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이들의 치유를 돕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